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The Fiftieth Anniversary Exhibition of MMCA Korea

The Square: Art and Society in Korea

1900—2019

THE
SQUARE
광장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THE FIFTIETH ANNIVERSARY OF
MMCA KOREA

한편 한국화의 실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유근택은 〈긴 울타리 연작〉(2000)에서 전통 산수화의 관념에서 벗어나 사적 공간에서 포착되는 사물의 묘한 기운을 화폭에 담았다. 박윤영은 비단 병풍에 캐나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담은 〈픽톤의 호수〉(2005)를 제작하며 주제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문화적 성장 위에 'IMF(금융외환위기)'가 촉발되었다.

이윤의 〈하이웨이〉(1997)는 '금융외환위기(IMF)' 직전 한국 사회의 극한 속도를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으로 담아냈다. IMF는 국가 부도 위기와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직장인들의 해고를 불러일으켰다. 디자이너 김영철(AGI Society)은 '그래픽 상상의 행동주의'를 슬로건으로 세상에 발언하는 디자인을 실천하며 〈IMF 실업자 시리즈〉를 그려 냈다. 이는 정치적 모더니즘을 표방한 디자인 분야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이윤엽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²⁶의 투쟁과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에서 판화로 담아내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그저 '푸른 사막'이었던 것을 인지해야 했던 '신세대'는 풍요와 빈곤을 동시에 겪어 낸 가혹한 세대가 되었다.²⁷ 그중에서도 예술가는 가장 척박한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

3-6 가뭄 빛 바다

밀레니엄(2000년대)과 함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향하던 한국은 '행동하는 네티즌'의 등장과 시위의 문화제 형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광장'은 월드컵과 사회적 발언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졌다. 또 햇빛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되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도 사회적 관심이 되었다. 한국 현대미술은 대안세계화(alterglobalization)를 기반으로 글로벌 이동(global mobility)으로 인한 탈경계 담론의 미학적 실천과 사회적 관계를 실천하는 현실주의 미술의 양상을 띠었다.²⁸ 이는 곧 '이주', '유목', '소수자', '공공성' 등의 관심으로 표명되었다. 작가들은 이를 다양한 매체와 문학, 출판, 역사의 '경계'와 '관계'를 교차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남겼다. 또 대안 공간을 중심으로 담론, 출판, 전시의 방식 등이 확장되었다.

27.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9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둔 기타 공장 콜트·콜텍이 경영 위기를 빌미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노동자 전원을 부당 해고한 사건이다. "예술을 빛나는 도구가 공정한 노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 아래, 노동조합과 예술가들이 연대하여 투쟁하였다. 실제 노동자들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밴드'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 12년 만에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한 노사의 잠정 합의를 이루어 냈다.

28. 방탄소년단(BTS), 「바다」, *Love yourself, 承 Her*,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017 인용 참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작된 신미경의 〈트랜스레이션 시리즈〉(2006-2013)는 총 열여섯 점의 도자기 모양의 비누 조각들과 목상자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때 도자기는 서구에서 바라는 중국풍으로 이동과 운송의 과정을 상징하는 목상자들과 함께 설치됨으로써, 문화 교류와 이질적인 문화들 사이의 충돌을 다루었다. 김성환의 〈템퍼 클레이〉(2012)²⁹는 한국 근현대사를 셰익스피어 『리어왕』의 서사 구조로, 그리고 공간을 거울 구조를 빌려 재해석하였다.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과 세대 간의 죽음과 비극은 한국 사회의 갈등, 부조리로 비유되었는데,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퍼포먼스의 편집으로 선보였다.

반면 노동과 아시아 정체성도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미술이 유럽과 북미를 벗어나, 새로운 위치 짓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홍순의 〈위로공단〉(2014)은 한국 사회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착취된 여성 노동에 대한 것이다. 또 이념의 굴레 없이 여성 노동의 과거와 현재, 인식과 기억, 현실과 무의식,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 영화와 미술 등 다양한 범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역사를 완성시켰다. 특히 마지막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과 가리봉동의 옛 노동자의 삶과 연결시키며 노동과 자본의 속성을 일상생활 속의 감동 속에서 예리하게 건드려 본다. 이 작품을 통해 자본의 전 지구적 순환과 인간 권력과 노동의 본질에 대해 한국 사회의 역설을 통찰하게 된다.

끝으로, 김소라와 김홍석의 〈만성역사해석증후군〉(2003)은 역사에 대한 열망과 비틀어진 욕망의 사회에 대한 일갈이자, 동시에 이번 전시에 대한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작가 팀은 광장에 설치되는 영웅들의 동상을 혼한 오브제들로 조합하여 우스꽝스러운 괴물처럼 재현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영광이 만들어 내는 거대 서사를 분해시키고, 탈영웅화시키려는 의도다. 또 이를 통해 인간의 역사, 미술의 역사에서 정치적 해석과 그로 인한 잠재적 갈등임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이는 이번 전시에서, 예술가들이 창작한 그 시대의 산물인 작품들을 통해 도달해 보고 싶었던 광장, 즉 '바다'이기도 하다.

4 하얀 새

원형 전시장은 제의 공간으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되새기고, 예술가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광장으로 상상되었다. 이때 오재우

29. 배명지, 「세계화 지형도에서 본 2000년대 한국현대미술전시」, 『미술사학보』, 2013, 9-10 참조.

30. 작품 제목인 '템퍼 클레이'는 '진흙 개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바로 『리어왕』 이야기 중 한 구절에서 인용된 것이다.



김성환(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dogr로도 알려진)와 음악 공동 작업), 〈템퍼 클레이〉,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3분 41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